

약국과 집 쳇바퀴 돌다 자칫 준비없이 노년 맞을수도

은행 조사
은퇴 자금

6억 내외... '약사연금' 도입 의견 대두



2006년 가을 어느날 50대 초반의 K약사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약사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라고 한다.

S약대를 나와 20년 넘게 약국을 했던 이 약사의 갑작스런 죽음은 동료 약사들에겐 떠난 이의 슬픔을 줬지만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을 남겼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그것이었다. 아내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고 자식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였기에 가정의 빈자리는 그만큼 더 컸다.

남겨진 약국은 각종 빚잔치로 다 사라졌고 달랑 아파트 한채 남은 게 유산의 전부였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은 없었다.

아내는 남편 없는 허전함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각박한 세상 속으로 나와야 했다.

아들은 스스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앞가림에 나섰다.

서울 중랑구에서 사는 40대 후반의 J약사. 81년 대학을 졸업하고 97년부터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그는 현재 혼자 산다.

아내와 아이는 외국으로 떠난지 수년이 됐다.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인 그는 요즘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다. 의약분업 전까지 잘 되던 약국은 분업을 기점으로 점점 힘들어졌다.

지금은 분업예외 지역에서 처방전 한 장 없이 약국을 하고 있다.

그나마 벌어들인 돈은 잘 모르는 사업에 손댔다가 다 날렸다. 그는 요즘 수도권을 벗어나 또 다른 분업예외 약국을 찾고 있다. 천정부지로 솟은 권리금을 끼고 문전 약국을 열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약국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J약사는 걱정이 태산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약사지만 정작 스스로는 가난한 자영업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약사들이 요즘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빈궁하다는 말이다. 충분한 자산을 갖추지 못하고 약국 운영에만 매달린 약사에게 딱 맞는 말이다.

자신의 노후나 부재 후 가족의 생계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 종일 약 먼지 먹어가며 지내온 약사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그나마 수십년 약국 경영으로 건물 하나 건졌다면 다행이지만 이도 저도 없이 약국에만 투자 해 온 약사들에겐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걱정이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4.4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81.8세다. 얼마전 비즈앤이슈가 약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들이 생각하는 정년 시기로 61~65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평균수명과 비교해보면 남자 약사는 은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퇴 후 10~15년을, 여자 약사는 15~20년의 노후를 보내야 한다. 은퇴를 대비해 필요한 노후자금에 대해 약사 10명 중 8명은 4~10억원 가량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후 준비에 자신 있다고 답한 약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은행이 최근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은퇴 후 생활자금 규모는 6억33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이 생각하는 노후 자금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녀 학업자금, 결혼 자금, 약국 운영자금을 사용하고도 이 같은 규모의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이나 보험을 평소 준비해둬야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세대를 반영하듯 일부 지역에서 약사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일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경북지부는 올해 초 신년도 사업구상에 약사공제회 추진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

있다. 16개 시도 지부 중 평균 연령이 높은 경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택관 지부장은 "50세 이상의 회원이 전체 회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약국은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없는 특수성으로 회원 사망시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약사회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에 대해 절반이 넘는 약사들이 가입을 고려해볼겠다는 최근 조사도 주목된다.

의사사회도 협회차원의 공제회나 연금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지 오래다. 올해 의협선거에서는 의사연금이라는 공약이 공개적으로 나와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노후생활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과 보험에 높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웅종기자 bulldong@kpanews.co.kr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객 순 애

부회장 김 이 주
부회장 윤 병 길
부회장 황 숙 현
부회장 박 기 선
총 무 김 정 기

부회장 조 원 숙
부회장 백 경 숙
부회장 임 혜 숙
부회장 심 숙 보
총 무 문 정 순

부회장 권 태 정
부회장 윤 현 숙
부회장 임 금 숙
부회장 박 정 신
외 동문일동